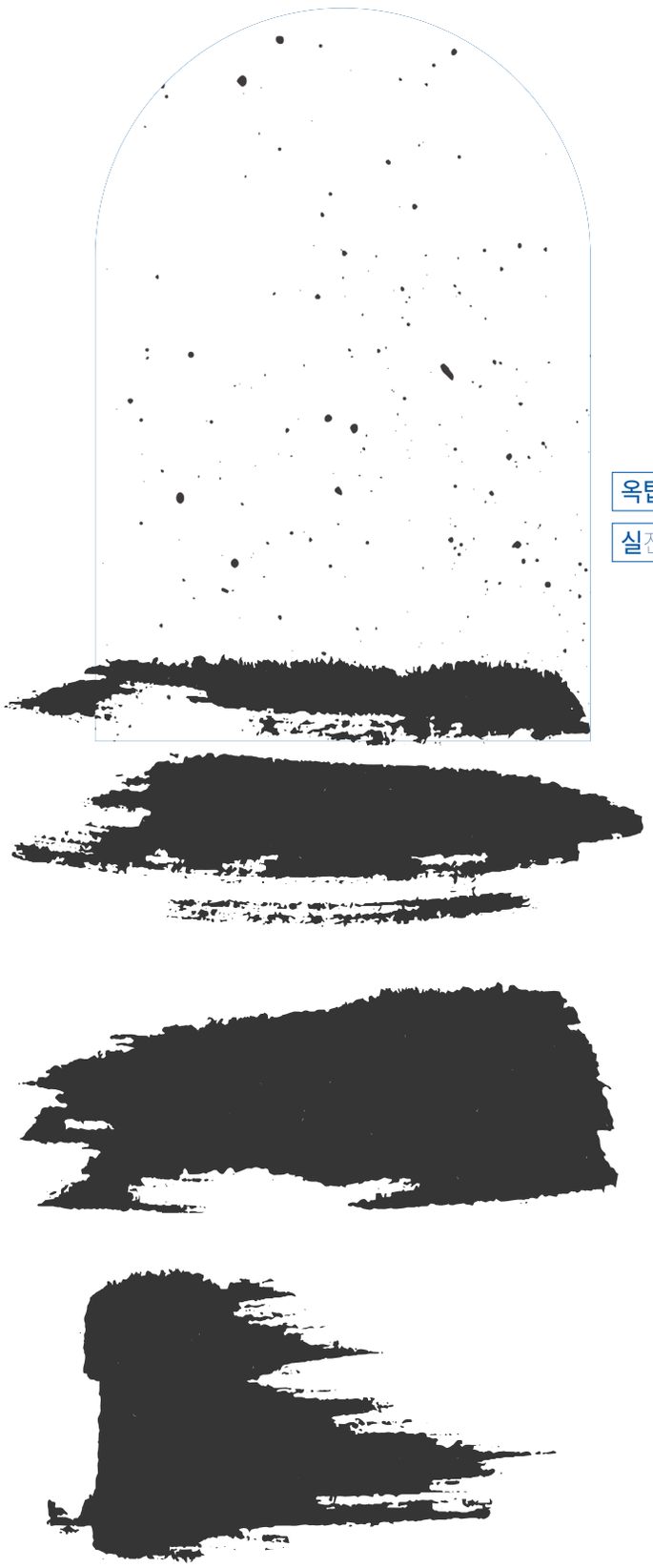
독서 기출편



옥탑방 국어

실전 사고와 판단

문제

저자의 말

안녕하세요 옥탑방_국어입니다. 드디어 옥탑방_국어의 첫 번째 교재가 나왔습니다. 옥탑방_국어는 우리 주위의 많은 강의, 교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조들이 실전과 괴리가 있음을 느끼고,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을 담기 위해 교재 집필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교재를 어떤 의도로 집필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야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탑방_국어에서는 '왜 수험생들이 수능 국어를 어려워할까?', '시험장에서 국어 점수가 왜 떨어질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공부 방법과 실전의 괴리에서 오는 시험장에서의 압박감

우리는 절대로 평상시 공부하는 방식대로 실전에 임할 수 없습니다. 친절한 해설서에 드러난 만큼 시험장에서 사고하기란 불가능하며, 강사님들이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모든 내용을 시험장에서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이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공부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평소 공부 환경과 실전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압박감'입니다. 선택과목, 문학, 독서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 번에 풀어야 하는 데에서 오는 압박감, 8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서 오는 압박감, 취약한 독서 제재를 만났을 때의 압박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부터 오는 압박감. 이런 압박감들의 종류, 정도는 학생의 수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수능 국어 능력의 최고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체화하여 실전에서 발휘하기란 쉽지 않죠. 오히려 괴리감을 시험장에서 느끼고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독해의 '하한치'만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옥탑방_국어가 제시하는 독해의 하한치,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전에서의 행동지침을 담았습니다.

2. 시험장에서 '해야 하는 것' vs '돼야 하는 것'

또한 시험장에서 해야 하는 것과 돼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집중하고, 독해의 강, 약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험장에서 수능 국어를 절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 시험장에서 자동적으로 돼야 하는 것과 전략을 통해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돼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옥탑방_국어 교재에서는 시험장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자동적으로 돼야 하는 것의 기준을 제공하여 점수를 확보해놓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합니다.

3. 수능 국어를 이해해라.

수능 국어, 즉, 국어 시험과 국어는 분명 다릅니다. 물론 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국어 시험을 잘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수능 국어 공부에 있어 국어를 이해하고, 완벽한 독해력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출을 통해 수능 국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수능 국어'가 어떤 식으로 수험생에게 질문을 던지는지, 어떤 식으로 지문을 작성하는지,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드는지,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대처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수험생을 기다려주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어에 대한 이해는 그 후의 일입니다. 옥탑방_국어에서는 독서 실사판을 통해 수능 국어에서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반복되는 언어로 담아놓았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수능 국어를 이해하고, 수능 국어에 꼭 필요한 뼈대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번 교재를 집필하면서 수험생들이 기존에 학습하시던 것들과 병행하였을 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수험생이 꼭 가져가야 할 독해의 '하한치'와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뼈대'를 만들고, 수능 국어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길 응원합니다.

교재활용

옥탑방_국어_독서 실사판은 문제편과 해설편, 두 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5회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회차별로 6개의 지문을 수록하였으며 30개의 지문 모두 기출과 평가원 모의고사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08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지문 중 각 회차의 주제와 저희가 이 책을 통하여 전달하고 싶은 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문들을 선별하여 모아두었습니다. 수능 국어의 실전적 뼈대를 더 견고히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교재이기에 이 교재에서 학습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른 기출 공부를 병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제편 활용

문제편은 각 회차에 해당하는 지문과 문제들이 수록되어있는 책입니다.

먼저 세트별로 문제를 푸시고, 채점을 하십시오. 그 후에 본격적인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제를 다 맞았다고, 혹은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다음 세트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일 뿐 근본적인 국어 실력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를 다 푸시고 난 다음 본인이 피드백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 사진과 같이 '논리적 분석'이라는 칸을 각 지문과 문항 옆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먼저 '지문의 논리적 분석'란에는 자신만의 지문 분석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락별 내용 요약도 좋고, 구조도 그리기도 좋습니다. 일단 그 어떤 것이라도 시도를 해 보신 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 자신만의 지문 분석 방법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문제의 논리적 분석' 코너에는 각 선지의 근거, 정오 판단이 애매했던 선지의 정확한 근거 등을 한 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작업은 본인이 틀렸던 문항에서의 사고 과정을 복기한 후 생각의 오류를 꼭 적어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기출 분석 방법에 있어서 '정석'은 없으며 '왕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스스로 분석 작업을 시도한 후 해설편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옮TOP 지문의 논리적 분석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수능)

[1]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2]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3]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4]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옮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0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해설은 이 작업까지 끝낸 후에 보셔야 완성된 해설을 '감상'하는 것이 아닌, 비교를 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메우실 수 있습니다.

교재활용

해설편 활용

해설편은 문제편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은 해설들과 TIP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편과 유사한 형태로 집필한 이유는 최대한 실전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고들을 담아내고, 본인의 분석 작업과 옥탑방 국어의 해설을 비교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단락만을 떼어내어 해설을 하거나 문장 단위로 재편집하여 해설을 하는 것은 실전과의 괴리를 유발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집필하였습니다.

해설편을 보실 때에는 문제편의 '논리적 분석'란에 적은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과 tip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문제편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해 다음 회차나 지문을 풀 때, 본인의 문제점이나 행동 강령들을 책 한켠에 적어두고 항상 의식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신다면 현장 풀이 → 분석 작업 → 해설→ 셀프 피드백의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현장 풀이 = 해설'에 조금이나마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문 독해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수치 표현 등에 집착했더라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멘붕이 올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문에 ㉠, ㉡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 vs ㉡ 즉, 『㉠그레고리력 vs ㉡율리우스력』으로 몰아가셨다면 조금이나마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의 정보상 차이점 위주로 읽어나가셨으면 그나마 맘이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1, 2단락 }

과학 기술 제재 전반부의 수치 표현 등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미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정보가 문제 풀 때 기억 안 나면 다시 되돌아오면 됩니다. 최초 독해 시 수치 표현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금물!

잘은 몰라도 율리우스력이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레고리력이 등장했다...요 정도 취지의 실전 독해면 무난합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수능)

[1]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2]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3]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4]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5]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6]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7]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8]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9]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10]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11]그는 당시 천문학자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해설편에는 ‘ TOP TIP’이라는 것도 수록했습니다. 이는 저자 혹은 검토자 분들이 특정 지문이나 문제를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혹은 킬러 문항의 경우 ‘현장’에서 정답이라도 고르기 위해 했어야 할 생각 등을 TIP형식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굉장히 실전적인 TIP들과 선배들의 좋은 사고 과정들이 많이 들어갔으니 체화하시기 바랍니다.

> 옮TOP TIP
>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은 옳은 선지를 찾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최근 기출 문제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선지의 길이가 길고 지문 여러 곳의 정보를 합쳐놓은 경우가 많아 시험장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문 최초 독해 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쳐내고 강조하는 뉘앙스의 표현들, 지문의 굵직한 줄기의 내용 위치라도 기억한다면 일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어낼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적, 이유, 사건, 사건의 주체 등에 주목하면 중요 내용들을 뽑아내기 좋습니다.
>
>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사고를 할 수 있다면, 해당 지문은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시켜서 그레고리력을 만들었는데 1년의 길이를 설정할 때 항성년은 절기에 안 맞아서 회귀년의 평균을 쓰고 윤년과 평년을 설정함.’ 정도로 머리 속에 요약이 됩니다. 또한 이런 정보들의 위치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세부사항을 물어보더라도 돌아가서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원은 지문에서 강조한, 큰 흐름의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재로 공부한 학생들은 수능 국어 독서에서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국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CONTENTS

1회차 : ㉠ VS ㉡과 대립, 비판 문제, 경제 제재 GUIDE 011

① 2011학년도 수능 (그레고리력 VS 율리우스력) - 과학(㉠ VS ㉡)
② 2017학년도 수능 (논리실증주의와 포퍼 VS 콰인) - 인문(㉠ VS ㉡, 비판)
③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칼로릭) - 과학(견해들 간의 관계)
④ 2018학년도 6월 평가원(통화정책 기준금리) - 경제(경제 제재 GUIDE)
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미시 VS 거시) - 경제(대립, 경제 제재 GUIDE)
⑥ 2022학년도 9월 평가원(유물론적 인간관) - 인문(대립)

2회차 : 독서 PART <보기> 문제 GUIDE, 법 제재 GUIDE 033

①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인과 관계) - 인문(<보기> 문제 GUIDE)
② 2018학년도 9월 평가원(양자 역학) - 과학 + 인문(정보들 간의 연결)
③ 2008학년도 수능(할인율) - 경제(<보기> 문제 GUIDE)
④ 2010학년도 9월 평가원(<보기> 문제 GUIDE)
⑤ 2016학년도 수능 B형(부관, 기판력) - 법(법 제재 GUIDE)
⑥ 2023학년도 9월 평가원(유류분)- 법(법 제재 GUIDE)

3회차 : 1, 2회차 복습, 과학 기술 제재와 정보량 많은 지문 GUIDE 055

① 2023학년도 9월 아도르노 - 인문(대립, 비판)
② 2011학년도 수능(채권) - 경제(추론)
③ 2017학년도 9월 평가원(법인격) - 법(법 제재 복습)
④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B형(세포 독성 항암제 VS 표적항암제) - 과학(과학 기술 제재 GUIDE)
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PCR) - 과학(정보량 많은 지문 GUIDE)
⑥ 2018학년도 6월 DNS 스푸핑 - 과학(과학 기술 제재 GUIDE)

4회차 : 과학 기술 제재 집중 연습 075

① 2021학년도 9월 평가원(예술의 조건) - 예술(대립, 추론)
②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A형(X선, CT 지문) - 과학(상관관계)
③ 2016학년도 수능 B형(부력, 항력, 중력) - 과학(상관관계, <보기> 문제)
④ 2015학년도 수능 B형(슈퍼문) - 과학(언어적 반대항, <보기> 문제)
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OIS 기술) - 과학(대립, <보기> 문제)
⑥ 2022학년도 9월 평가원(메타버스 기술 지문) - 과학(방향성)

5회차 :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 총 복습 095

① 2015학년도 수능 B형(아 VS 비아) - 인문(개념들 간의 관계)
② 2012학년도 수능(비트겐슈타인) - 인문(개념들 간의 관계)
③ 2019학년도 수능(가능세계) - 인문(개념, 논리 제재)
④ 2013학년도 수능(이상 기체) - 과학(과학 기술 제재 복습)
⑤ 2023학년도 6월(혈액) - 과학(정보량 많은 지문 복습)
⑥ 2023학년도 6월(경제학, 사건의 효과평가) - 경제(<보기> 문제 복습)

빠른 정답 114

Orbi.kr

1

회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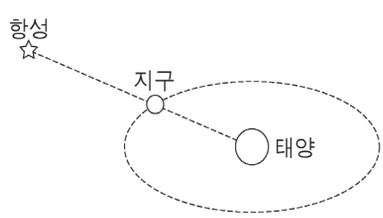
옵TOP 지문의 논리적 분석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수능)

[1]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2]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3]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4]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5]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6]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7]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8]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9]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10]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11]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12]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13]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A] [14]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15]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16]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7]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18]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19]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20]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이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21]이것은 1

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22]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23]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0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옳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③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02*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 보기 >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행을 고려했군.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옵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03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옵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04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

○○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60초가 걸렸다.

	㉮	㉯	㉰
①	항성	항성년	회귀년
②	항성	회귀년	항성년
③	지구	회귀년	회귀년
④	지구	항성년	회귀년
⑤	지구	회귀년	항성년

옵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05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수능)

옳TOP 지문의 논리적 분석

[1]㉠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2]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3]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4]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5]하지만 ㉡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6]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7]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8]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9]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10]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11]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12]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3]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14]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16]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17]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18]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19]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20]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21]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22]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3]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24]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25]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26]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7]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28]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옵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0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옵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0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반복 명제라고 본다.

0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옳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09*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1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옳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① 잇따른다　② 다다른다　③ 봉착한다
④ 회귀한다　⑤ 기인한다

옥탑방 국어

실전 사고와 판단

저자의 말

안녕하세요 옥탑방_국어입니다. 드디어 옥탑방_국어의 첫 번째 교재가 나왔습니다. 옥탑방_국어는 우리 주위의 많은 강의, 교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조들이 실전과 괴리가 있음을 느끼고,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할 것들을 담기 위해 교재 집필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교재를 어떤 의도로 집필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야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탑방_국어에서는 '왜 수험생들이 수능 국어를 어려워할까?', '시험장에서 국어 점수가 왜 떨어질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공부 방법과 실전의 괴리에서 오는 시험장에서의 압박감

우리는 절대로 평상시 공부하는 방식대로 실전에 임할 수 없습니다. 친절한 해설서에 드러난 만큼 시험장에서 사고하기란 불가능하며, 강사님들이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모든 내용을 시험장에서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이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공부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평소 공부 환경과 실전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압박감'입니다. 선택과목, 문학, 독서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 번에 풀어야 하는 데에서 오는 압박감, 8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서 오는 압박감, 취약한 독서 제재를 만났을 때의 압박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부터 오는 압박감. 이런 압박감들의 종류, 정도는 학생의 수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수능 국어 능력의 최고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체화하여 실전에서 발휘하기란 쉽지 않죠. 오히려 괴리감을 시험장에서 느끼고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독해의 '하한치'만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옥탑방_국어가 제시하는 독해의 하한치,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전에서의 행동지침을 담았습니다.

2. 시험장에서 '해야 하는 것' vs '돼야 하는 것'

또한 시험장에서 해야 하는 것과 돼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집중하고, 독해의 강, 약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험장에서 수능 국어를 절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 시험장에서 자동적으로 돼야 하는 것과 전략을 통해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돼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옥탑방_국어 교재에서는 시험장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자동적으로 돼야 하는 것의 기준을 제공하여 점수를 확보해놓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합니다.

3. 수능 국어를 이해해라.

수능 국어, 즉, 국어 시험과 국어는 분명 다릅니다. 물론 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국어 시험을 잘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수능 국어 공부에 있어 국어를 이해하고, 완벽한 독해력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출을 통해 수능 국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수능 국어'가 어떤 식으로 수험생에게 질문을 던지는지, 어떤 식으로 지문을 작성하는지, 어떤 돌발 상황을 만드는지,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대처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수험생을 기다려주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어에 대한 이해는 그 후의 일입니다. 옥탑방_국어에서는 독서 실사판을 통해 수능 국어에서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반복되는 언어로 담아놓았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수능 국어를 이해하고, 수능 국어에 꼭 필요한 뼈대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이번 교재를 집필하면서 수험생들이 기존에 학습하시던 것들과 병행하였을 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수험생이 꼭 가져가야 할 독해의 '하한치'와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뼈대'를 만들고, 수능 국어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길 응원합니다.

교재활용

옥탑방_국어_독서 실사판은 문제편과 해설편, 두 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5회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회차별로 6개의 지문을 수록하였으며 30개의 지문 모두 기출과 평가원 모의고사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08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지문 중 각 회차의 주제와 저희가 이 책을 통하여 전달하고 싶은 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문들을 선별하여 모아두었습니다. 수능 국어의 실전적 뼈대를 더 견고히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교재이기에 이 교재에서 학습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른 기출 공부를 병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제편 활용

문제편은 각 회차에 해당하는 지문과 문제들이 수록되어있는 책입니다.

먼저 세트별로 문제를 푸시고, 채점을 하십시오. 그 후에 본격적인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문제를 다 맞았다고, 혹은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다음 세트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일 뿐 근본적인 국어 실력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를 다 푸시고 난 다음 본인이 피드백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 사진과 같이 '논리적 분석'이라는 칸을 각 지문과 문항 옆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먼저 '지문의 논리적 분석'란에는 자신만의 지문 분석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락별 내용 요약도 좋고, 구조도 그리기도 좋습니다. 일단 그 어떤 것이라도 시도를 해 보신 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 자신만의 지문 분석 방법 요령이 생기실 겁니다. '문제의 논리적 분석' 코너에는 각 선지의 근거, 정오 판단이 애매했던 선지의 정확한 근거 등을 한 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작업은 본인이 틀렸던 문항에서의 사고 과정을 복기한 후 생각의 오류를 꼭 적어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기출 분석 방법에 있어서 '정석'은 없으며 '왕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스스로 분석 작업을 시도한 후 해설편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옮TOP 지문의 논리적 분석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수능)

[1]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2]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3]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4]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옮TOP 문제의 논리적 분석

0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해설은 이 작업까지 끝낸 후에 보셔야 완성된 해설을 '감상'하는 것이 아닌, 비교를 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메우실 수 있습니다.

교재활용

해설편 활용

해설편은 문제편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은 해설들과 TIP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편과 유사한 형태로 집필한 이유는 최대한 실전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고들을 담아내고, 본인의 분석 작업과 옥탑방 국어의 해설을 비교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단락만을 떼어내어 해설을 하거나 문장 단위로 재편집하여 해설을 하는 것은 실전과의 괴리를 유발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집필하였습니다.

해설편을 보실 때에는 문제편의 '논리적 분석'란에 적은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과 tip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문제편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해 다음 회차나 지문을 풀 때, 본인의 문제점이나 행동 강령들을 책 한켠에 적어두고 항상 의식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신다면 현장 풀이 → 분석 작업 → 해설→ 셀프 피드백의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현장 풀이 = 해설'에 조금이나마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문 독해가 어려운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수치 표현 등에 집착했더라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멘붕이 올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문에 ㉠, ㉡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 vs ㉡ 즉, 『㉠그레고리력 vs ㉡율리우스력』으로 몰아가셨다면 조금이나마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의 정보상 차이점 위주로 읽어나가셨으면 그나마 맘이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1, 2단락 }

과학 기술 제재 전반부의 수치 표현 등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미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정보가 문제 풀 때 기억 안 나면 다시 되돌아오면 됩니다. 최초 독해 시 수치 표현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금물!

잘은 몰라도 율리우스력이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레고리력이 등장했다...요 정도 취지의 실전 독해면 무난합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수능)

[1]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2]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3]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4]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5]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6]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7]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8]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9]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10]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11]그는 당시 천문학자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해설편에는 ‘ TOP TIP’이라는 것도 수록했습니다. 이는 저자 혹은 검토자 분들이 특정 지문이나 문제를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혹은 킬러 문항의 경우 ‘현장’에서 정답이라도 고르기 위해 했어야 할 생각 등을 TIP형식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굉장히 실전적인 TIP들과 선배들의 좋은 사고 과정들이 많이 들어갔으니 체화하시기 바랍니다.

> 옮TOP TIP
>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은 옳은 선지를 찾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최근 기출 문제의 경우 적절하지 않은 선지의 길이가 길고 지문 여러 곳의 정보를 합쳐놓은 경우가 많아 시험장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문 최초 독해 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쳐내고 강조하는 뉘앙스의 표현들, 지문의 굵직한 줄기의 내용 위치라도 기억한다면 일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어낼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적, 이유, 사건, 사건의 주체 등에 주목하면 중요 내용들을 뽑아내기 좋습니다.
>
>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사고를 할 수 있다면, 해당 지문은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시켜서 그레고리력을 만들었는데 1년의 길이를 설정할 때 항성년은 절기에 안 맞아서 회귀년의 평균을 쓰고 윤년과 평년을 설정함.’ 정도로 머리 속에 요약이 됩니다. 또한 이런 정보들의 위치라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세부사항을 물어보더라도 돌아가서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원은 지문에서 강조한, 큰 흐름의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재로 공부한 학생들은 수능 국어 독서에서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국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CONTENTS

1회차 : ㉠ VS ㉡과 대립, 비판 문제, 경제 제재 GUIDE 011

① 2011학년도 수능 (그레고리력 VS 율리우스력) - 과학(㉠ VS ㉡)
② 2017학년도 수능 (논리실증주의와 포퍼 VS 콰인) - 인문(㉠ VS ㉡, 비판)
③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칼로릭) - 과학(견해들 간의 관계)
④ 2018학년도 6월 평가원(통화정책 기준금리) - 경제(경제 제재 GUIDE)
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미시 VS 거시) - 경제(대립, 경제 제재 GUIDE)
⑥ 2022학년도 9월 평가원(유물론적 인간관) - 인문(대립)

2회차 : 독서 PART <보기> 문제 GUIDE, 법 제재 GUIDE 037

①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인과 관계) - 인문(<보기> 문제 GUIDE)
② 2018학년도 9월 평가원(양자 역학) - 과학 + 인문(정보들 간의 연결)
③ 2008학년도 수능(할인율) - 경제(<보기> 문제 GUIDE)
④ 2010학년도 9월 평가원(<보기> 문제 GUIDE)
⑤ 2016학년도 수능 B형(부관, 기판력) - 법(법 제재 GUIDE)
⑥ 2023학년도 9월 평가원(유류분)- 법(법 제재 GUIDE)

3회차 : 1, 2회차 복습, 과학 기술 제재와 정보량 많은 지문 GUIDE 067

① 2023학년도 9월 아도르노 - 인문(대립, 비판)
② 2011학년도 수능(채권) - 경제(추론)
③ 2017학년도 9월 평가원(법인격) - 법(법 제재 복습)
④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B형(세포 독성 항암제 VS 표적항암제) - 과학(과학 기술 제재 GUIDE)
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PCR) - 과학(정보량 많은 지문 GUIDE)
⑥ 2018학년도 6월 DNS 스푸핑 - 과학(과학 기술 제재 GUIDE)

4회차 : 과학 기술 제재 집중 연습 095

① 2021학년도 9월 평가원(예술의 조건) - 예술(대립, 추론)
②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A형(X선, CT 지문) - 과학(상관관계)
③ 2016학년도 수능 B형(부력, 항력, 중력) - 과학(상관관계, <보기> 문제)
④ 2015학년도 수능 B형(슈퍼문) - 과학(언어적 반대항, <보기> 문제)
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OIS 기술) - 과학(대립, <보기> 문제)
⑥ 2022학년도 9월 평가원(메타버스 기술 지문) - 과학(방향성)

5회차 :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 총 복습 121

① 2015학년도 수능 B형(아 VS 비아) - 인문(개념들 간의 관계)
② 2012학년도 수능(비트겐슈타인) - 인문(개념들 간의 관계)
③ 2019학년도 수능(가능세계) - 인문(개념, 논리 제재)
④ 2013학년도 수능(이상 기체) - 과학(과학 기술 제재 복습)
⑤ 2023학년도 6월(혈액) - 과학(정보량 많은 지문 복습)
⑥ 2023학년도 6월(경제학, 사건의 효과평가) - 경제(<보기> 문제 복습)

빠른 정답 146

Orbi.kr

1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1]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2]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3]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4]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5]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6]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7]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8]사단은 법인(法人)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9]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 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10]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11]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12]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13]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14]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16]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17]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18]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19]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20]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21]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22]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23]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4]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25]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26]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7]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28]

첫 단락에서부터 여러 가지 법 개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소한 개념들로부터 서서히 멘붕이 유발될 수 있는데, 어차피 개념이라는 것은 뒤에서 정작 말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초석에 불과합니다. 문제 풀이 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 1단락 }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단체 > 사단(단체 + 사단성) > 사단 법인(사단 + 등기)」 순으로 개념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또한 단락 전반적으로 사람과 법인 간의 확연한 구별도 이루어집니다.

사람	법인 (사단 법인)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가짐	저절로 가지는 것 × 등기되어야만.
양자는 엄격히 구별!	

{ 2단락 }

일단 『주식회사(사단 법인) vs 일인 주주 회사』의 구별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일인 주식회사 : 한 사람이 전액 출자, 일인 주주, 개인(사람)과 회사(법인)의 경계 모호해짐 → 이는 1단락에서 언급한 '사단성'이 파괴되는 것이겠죠,
조금씩 어려워지기는 하는데...어쨌든 일인 주식회사의 내용에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풍겨옵니다.

{ 3단락 }

일단 20번 문장에서 18,19번 문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언급해 주었으니까 이제 독해하면서 '대책,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21~23번 문장에서 '이사' '대표 이사' 등의 개념을 쏟아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개념들은 '주식회사' '주주'의 개념과 함께 2단락 서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한 후 논의를 전개해 나갔으면 지문이 더 깔끔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럼에도 이렇게 지문을 쓴 이유가 있겠죠? 흐름을 놓치라고! 평가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큰 흐름은 「문제점 + 해결책」이었으므로 흔들리지 말고 이에 맞게 독해해 나갑시다.

<중심 흐름>
문제점 : 주주가 이익을 취할 때 개인과 법인의 구분 X →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 입음

해결책 :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법인격 부인,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여 예외적으로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
(조금 더 생각해본다면, 원칙대로라면 사람과 법인이 구분되어 일인 주주는 책임을 모면하게 되는데 사람과 법인의 구분 포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7번 문장에서 법 제재의 단골인 '예외'라는 표현이 등장하므로 다음과 같이 마음 속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원칙	예외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 ·회사 관련 거래는 회사 재산으로 책임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일인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관련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10

추론 문제이므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떨어진 정보들 간의 결합을 생각해 봅시다.

⑤ 1번 문장과 8번 문장의 정보 결합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는 법인격 혹은 등기입니다(8).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일 뿐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오답인 이유]
① 사단은 운영 기구를 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5).
② 7번 문장과 12~13번 문장의 결합입니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며(7), 사단의 일종인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됩니다(13).
③ 3번 문장에서 권리 능력을 가지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4번 문장에서 법인격도 권리 능력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두 문장을 결합하면 되겠죠.
④ '법인격'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등기 여부입니다(8).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관련한 내용은 '사단성'과 관련이 있구요. 하지만 양자의 개념은 서로 무관합니다! 예컨대 일인 주주회사의 경우 '사단성'이 없어도 '법인격'을 갖출 수 있었죠. 그렇다면 구성원의 가입, 탈퇴가 '법인격'의 존속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등기되어 있는 한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유지될 것입니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29]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1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②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③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옳TOP TIP
④번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셨다면, 이런 식으로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 법인(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이 일인 주주를 제외하고 모두 탈퇴하고 3문단에서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법인격을 예외적,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일인 주주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일 뿐, 법인격의 존재 자체가 영구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문에 근거했을 때 법인격의 유무를 결정하는 요인은 등기의 여부밖에 없었습니다. 즉, 등기가 유지되기만 한다면 법인격은 계속 존속될 것이다. 독해 시 보조사 '만', '예외적', '일시적' 등의 표현에 주목했다면 이러한 오해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1*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②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④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⑤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옳TOP TIP

평가원은 쓸데없는 워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문이 점점 짧아지는 최근에는 더더욱 쓸데없는 내용을 쓰지 않죠. 예컨대 예전 기출에서는 '채권'과 '채무' 같은 개념의 정의를 설명해 주었지만, 최근에는 기출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정도 용어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정의를 설명해주지 않는 곳이 평가원입니다. 이런 평가원이 특별히 정의를 제시해주었다?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고3이나 N수생은 모를 법한 용어이거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정의를 소홀히 읽고 넘어가지 맙시다.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보다 지문에서 해주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12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② ⓑ :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③ ⓒ :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④ ⓓ :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⑤ ⓔ :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11

① '대표 이사'에 관한 정보는 2,3단락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결과적으로 17번, 18번 문장이 정답의 근거가 됩니다. 18번 문장의 시작이 '이처럼'인 것을 보고 바로 앞 17번 문장의 재서술이라는 걸 잡아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 이사 =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오답인 이유]
② 대표 이사는 회사의 개인 구성원이고 법인격은 단체 자체가 가지는 권리 능력입니다. 대표 이사 자신이 법인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일인 주식회사의 경우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일인 주주인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over하지 맙시다. 대표 이사라는 사람은 권리 능력을 가질 뿐입니다.
③ 이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23).
④ 주식회사의 의결 기관은 이사회입니다(21).
⑤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경우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16).

12

⑤ 회사의 자산이 감소한다고 하여 회사가 권리 능력(법인격)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상 의미이기 이전에 단순 일치 불일치에서 벌써 틀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회사가 어떻게 권리 능력을 가지지? 법인격을 가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답을 골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번 문장에서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라고 되어있으니 선지 내에서 회사의 권리 능력을 법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겠네요. 지문 어디에도 회사의 자산이 감소할 때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문제 상황 혹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답인 이유]
①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됩니다(10).
② 이는 11번 문장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③ 일인 주식회사가 갖추지 못한 사단성이 바로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5). 주식회사와 일인 주식회사를 비교해 일인 주식회사가 갖추지 못한 특성을 생각해보면 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④ 19번 문장 ⓓ 앞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3*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 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1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겸비(兼備)하면 ② 구비(具備)하면 ③ 대비(對備)하면
④ 예비(豫備)하면 ⑤ 정비(整備)하면

13

⑤ 29번 문장에서,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회사말고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문맥상 일인 주주밖에 없습니다.

[오답인 이유]
① ㉡의 상황은 회사가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이사회가 적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28번 문장에서, '법률'은 법인격 부인론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27번 문장에서,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됨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④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죠. 또한, 개인의 권리능력은 생존하는 내내 유지된다고 했으니(2)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4

㉠의 의미는 '요건을 갖추다.'입니다.
겸비하다는 '겸'이라는 단어에 유의했어야 합니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다.'처럼 목적어로 두 가지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때로 어휘 문제에서, 한자를 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말들을 대입해서 고민해보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1]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2]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3]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4]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5]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6]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7]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8]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9]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10]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11]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12]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13]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 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14]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 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15]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_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_2로 나뉜다. [16]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_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17]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18]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19]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20]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 의존성 단백질이다. [21]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22]비타민 K_1과 K_2는 모두 비타민 K -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_1은 간세포에서, K_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23]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_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_2가 담당한다. [24]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

{ 1단락 }

첫 단락부터 정보가 많이 쏟아집니다.
혈관 벽 손상 → 혈액 응고로 해결
혈액 응고 = 섬유소 그물(피브린) + 혈소판 마개(혈소판) = 혈병, 혈관 속 혈액 응고 시에는 혈병 = 혈전
문제 : 혈관 질환 발생 → 해결 : 비타민 K가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중요한 역할
꽤 많은 양의 용어도 챙기셨어야 하지만,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혈액의 응고' '혈액의 원활한 순환' 두 범주로 내용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지했어야 합니다!

{ 2단락 }

비타민 K의 '혈액의 응고'에 대한 역할이 먼저 제시됩니다.
비타민 K = 지방에 녹음, 혈액 응고에 도움을 줌(8)
그리고 혈액 응고는 연쇄 반응으로 일어난다 하며, 과학 지문에서 익숙한 과정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이해와 무관하게 순서라도 생각하며 읽어야겠죠.

①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 → ②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 → ③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꿈.

이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11번 문장부터 제시되나 봅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겠죠!
위 과정 중 활성화(①,②)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카르복실화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비타민 K가 이 카르복실화에 관여하나 봅니다.
아울러 12번 문장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필수조건을 언급하는 문장이기에 강하게 읽으셨어야 합니다!

{ 3단락 }

비타민 K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 vs ㉡』일 가능성이 높을테니 역시 강하게 읽습니다!
『㉠ 비타민 K_1 : 식물에서 합성 vs ㉡ 비타민 K_2 : 동물에서 합성 or 미생물 발효』

{ 4단락 }

17번 문장에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라고 시작하며 내용 범주를 바꿉니다. 결이 다른 내용이 시작되면서 이제 과학 지문의 후반부이니 점점 더 집중하셨어야 합니다.
'칼슘의 역설'이라는 용어가 던져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의 권장량을 K_1과 K_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_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1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17*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TOP TIP

개인적으로 시험장에서 발문의 '칼슘의 역설'을 보고 지문의 맥락상 두 가지 중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한 바와는 다른 결과,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역설'의 의미에 부합할 것이므로, 우선 칼슘 섭취의 목적인 '골다공증 예방'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면 될 것 같네요.
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섭취한 칼슘이 엉뚱하게도 혈관 석회화를 유발해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언급이 나오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④번 선지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언급은 맞고,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한다는 내용도 지문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면 혈관 석회화는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것이지 단백질과 칼슘의 결합(12)과는 인과 관계로 연결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지문 속에는 등장하지만 범주가 서로 다른 내용들을 그럴 듯하게 엮어 오답 선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번 선지도 풀 때 순간 헷갈린 선지였습니다. 선지 내에서 '혈액으로'가 틀린 부분입니다. 골다공증은 혈액으로의 칼슘 흡수가 아니라 뼈 조직으로의 칼슘 흡수와 관련이 있죠. 생물 지문에서 자주 함정이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위치, 공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더불어 적절하지 않은 인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뼈 조직으로 칼슘 흡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칼슘 보충제 섭취 → 혈액 내 칼슘 농도 ↑, 골밀도는 그대로.
그러다보니 오히려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라는 문제가 발생 → 해결은 '비타민 K → MGP 단백질 활성화 → 혈관 석회화 방지'

6번 문장에서 비타민 K의 역할을 '혈액의 응고' '원활한 순환' 두 범주로 나눈 것이 기억에 남아 있으신 분이라면, 2단락 내용은 '혈액의 응고', 4단락 내용은 '혈액의 원활한 순환'으로 대응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 5단락 }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 기술 제재는 후반부가 중요하므로 쫌만 참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 22번 문장을 보니 비타민 K_1, K_2의 차이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앞선 3단락의 『㉠ vs ㉡』의 구체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양자 모두 비타민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후에는 차이점을 체크하는 식으로 독해를 했으면 무난합니다.

K_1	K_2
비타민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	
간세포에서 활성 ↑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 ↑ MGP 단백질의 활성화

16

① 혈관 벽이 손상되었을 때, 혈액의 손실을 막기 위해 혈병이 형성됩니다(3). 혈관 속에서 생기는 혈전은 이 과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더불어 섬유소 그물이 뭉친 후 혈병 혹은 혈전이 생성되는 것이므로 시간적 선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인 이유]
②③ 혈액 응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야 합니다(3).
④ 혈관 경화는 이물질이 쌓여 발생한다고 합니다(5).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면 당연하게도 혈관 경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⑤ 19번 문장과 5번 문장을 연결 지으면 무리 없는 선지입니다.

17

먼저 칼슘의 역설을 다시 되돌아가 재독해한 후(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음)한 후 선지 점검에 들어가야죠. 선지 앞부

분을 후딱 훑어본 후 '역설'이라는 표현을 고려하여 뉘앙스 상 ②③⑤번 선지를 먼저 보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예방되지 않겠죠(18,19). 그래서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답인 이유]
① 비타민 K1의 효용은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23). 반면 칼슘 보충제는 '혈액의 원활한 순환'과 관련이 있는 정보입니다. 즉 이 선지는 앞뒤 내용이 범주 설정부터 제대로 안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칼슘 보충제 섭취는 비타민 K1의 효용성과 무관할 것입니다.
③ 칼슘 보충제 섭취는 혈관 석회화를 진행시켜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19).

18

먼저 선지를 ①②③ / ④⑤로 나누었으며, ㉠, ㉡ 연결 문제임과 최근 평가원 경향을 고려할 때, 공통점 선지들을 먼저 건드리는 게 현명할 듯싶습니다.

④ 12~14번 문장을 통해 비타민 K(비타민 K_1 + K_2)에 의해 표적 단백질이 카르복실화되는 것은 해당 단백질이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K_1과 K_2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는 선지는 타당합니다.

[오답인 이유]
① 비타민 K_1은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합성'은 식물에서 이루어집니다(15).
② 7, 8번 문장에서 '비타민 K'라고 표현했고, 이는 비타민 K_1, K_2 모두를 포괄하므로 ㉠, ㉡ 모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③ 비타민 K는 단백질의 활성화에 필요한 카르복실화에 관여합니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변형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즉, 비타민 K인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합니다(11~14).

1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④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옳TOP TIP

앞선 17번의 ⑤번선지, 18번의 ①번선지를 통해 교훈을 다시 남기겠습니다. 과학 지문 중 생물 지문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 위치, 공간은 매우 중요하니 놓치시면 안 됩니다.

18번의 ⑤번 선지의 경우 선지 표현의 의미가 약간 모호합니다.
실전이었다면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확실한 정답인 ④번 선지를 고르고 넘어갔어야 할 거 같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경우의 수를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 결핍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 ⓑ '결핍' 자체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인지 약간 모호합니다.
먼저 ⓐ의 의미라면 ㉠(비타민 K1)의 결핍은 혈액 응고의 지연을 가져오는 문제가 생기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의 의미라면, 16번 문장에 따랐을 때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비타민 K1을 충분히 섭취하여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비타민 K1은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이 비타민 K2가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24) 비타민 K2의 섭취가 충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종종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 ⓑ 어느 경우로 해석하더라도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1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기 >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다) 헤파린 : 비타민 K -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19

<보기>의 (가) : 비타민 K 작용을 방해
<보기>의 (나) : 피브린 분해
<보기>의 (다) : 트롬빈 작용을 억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 (가)만 읽고 ①, ④번선지를, (다)를 읽고 ③, ④, ⑤번 선지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③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이온의 결합은 지문에서 잡아드린 과정 ①, ②의 활성화입니다. 한편, 트롬빈의 작용은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는 것(과정 ③)입니다. 과정 ③에서 무엇인가를 억제해도 그 이전까지의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답인 이유]
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됩니다(21).
② 만일 (나)를 투여하여 피브린이 분해되면 섬유소 그물이 해체됨으로써 혈전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3).
④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과정은 과정 ③을 의미합니다. 트롬빈이 억제되면 과정 ②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인과 관계상 과정 ③도 당연히 억제될 것입니다.
⑤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 = '혈액 응고'로 읽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된 이후 피브린을 분해하며, (다)는 트롬빈에 의해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즉 (나)와 (다)의 투여는 모두 피브린의 수를 줄여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합니다.